

## 한국 현대 기독교 희곡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양상\*

- 작가 이반의 『흔적과 표적: 카운터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영호 (루터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며
- II. 성서적 세계관과 전례를 적용한 한국적 예배극으로 표현한 기독교 신앙
- III. 토착화에 대한 고뇌와 상징으로서의 실재적 기독교 신앙
- IV. 절대자와의 만남으로서의 삶과 신앙
- V. 나가며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14>

\* 이 논문은 2024년도 루터대학교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배움중심수업 개발과 확산을 위한 수업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추가 연구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본 희곡의 2004년 발표 당시의 제목은 『카운터포인트』였다. 2008년에 출간된 『이반 희곡 선집』 3권에도 이 작품의 제목은 『카운터포인트』이다. 극단 예맥에 의해서 연극화되면서 『소현세자, 흔적과 표적』이란 제목으로 공연되었다. 특히하게 이 작품은 작가가 은퇴 후 낙향하여 속초 예술인들의 연합팀이 공연을 준비하여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대구 대회에서 『카운터포인트: 소현세자, 흔적과 표적』(이반 작, 변유정 연출)로 금상을 차지했다.

---

• ABSTRACT •

---

Understanding <Faith> in Korean Modern Plays: Focusing on author  
Lee ban's <Trace and Target: Counterpoint>

Lee Young Ho (Luther University)

When author 'Lee ban' wrote <Traces and Targets: Counterpoint>, the world was in a new state of chaos. Terrorism and war were occurring everywhere. Although Christianity had been around for over 2,000 years, the world still seemed to be in the midst of rampant evil. In this work, 'Lee ban' reinterprets the Christian faith, asking what we believe in in these times. <Counterpoint> was written by author 'Lee ban' in 2004 and performed by the theater company 'Yemaek' in 2005, and can be said to be a work with a clear religious intention. This work is in the form of a worship play using a chorus and deals with the essential and ultimate issues of Christian faith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In the play <Counterpoint>, the author clearly depicts the death of Crown Prince Sohyeon as the first martyrdom in Korea. He actively accepted Christianity and actively contemplated his faith. Furthermore, the author says that he boldly walked the path of martyrdom, which has been believed to be the best form of life for a disciple who follows Christ. In <Counterpoint>, the writer 'Lee ban' clearly conveys this point. Through this play, he talks about human time, which is parallel to God's time in contradistinction, and about faith that brings together two parallel lines that seem like they will never meet.

**Key words:** Author 'Lee ban', Christianity, Faith, Christianity Play

---

## I. 들어가며

일본의 연구자, 사코 준이치로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경우, 표현의 주체 문제와 테마의 문제, 게다가 소재의 문제와 표현 시점의 문제 영역<sup>1)</sup>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주체는 기독교 신도이다. 즉, 기독교 문학의 주체가 기독교 신도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포교 문학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준이치로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의 인간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 문학<sup>2)</sup>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역사 혹은 우주를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작가의 경험의 한 형태로서의 기독교가 문학적 상상력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희곡은 현실을 중시하는 믿음의 문학으로서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신앙은 현실의 인간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하고 진실한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기독교 희곡의 가치는 이러한 종교 본질을 문학 내적 원리로써 최대한 실현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희곡의 작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생의 원리로 삼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생산하는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 희곡 작가인 이 반의 작품 속에 드러난 기독교의 신앙과 순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양상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1) 사코 준이치로, 『기독교와 문학』 신교신서, 1965년 11. - 윤일, 「시이나 린조 문학과 기독교」, 『동북아문화연구 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년, 547.에서 재인용

2) 위의 논문, 548.

2004년에 발표된 이 반의 『카운터포인트』는 본격적인 기독교 예배극을 표방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깊은 상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작품들보다 좀 더 높은 이상에 도달하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야기한다. 『카운터포인트』는 기독교 신앙과 불합리한 세계 간의 갈등을 ‘순교’라는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신과의 만남과 신앙의 본질을 작가 특유의 상징적 수법들을 통하여 그려냄으로써, 삶 속에서 실재하는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 희곡의 신앙 이해에 대한 제임스 파울러 이론을 통한 구분은 한국 기독교 희곡이 한국선교의 시작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에 대한 단계적인 신앙 발달의 과정을 거치며 작품 속에서 그 신앙을 형상화해 왔으며 파울러가 이야기하는 궁극의 신앙 발달의 6단계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 이반이 『흔적과 표적: 카운터포인트』를 준비할 당시의 세계는 새로운 혼란 속에 있었다. 도처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가 탄생한지 2천 년이 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창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재해석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파울러의 이론에 따르면 이반의 작품은 신앙 발달의 5단계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의 단계<sup>3)</s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정의의 요구와 그 요구의 확대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의를 아주 예리하게 볼 수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진리에 대한 비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분적 진리의 한계를 바르게 인식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상징들, 신화들, 의식들을 새로운 깊이에서 음미하고 소중히 여길 정도로 상징이 나타내는 실재의 의미를 깊게 이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가족의 분열

3) Fowler, J. W. *Stages of Faith*. 사미자 역, 『신앙 발달의 단계』(서울:한국장로회 출판사, 2002), 299~310.

과 분리를 생생한 아픔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분리된 채로 존속하며 변형되지 않은 세계와 변형하는 비전과 충성 사이에서 살고 행동한다고 말한다. 이반은 작품 속에서 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전 인격을 내어놓고 아무런 계산이 없이 신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시대의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진리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는 신과 완전한 만남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을 통한 존재의 포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서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큰 오해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울러가 5단계의 위험성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역설적 이해로 인하여 자족감에 빠져 마비된 수동성 혹은 무위에도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소현의 순교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처럼 말이다.

## II. 성서적 세계관과 전례를 적용한 한국적 예배극으로 표현한 기독교 신앙

작가 이반은 50여 년의 활동으로 한국 연극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연극 세계를 구축하여 왔다. 남북한의 문제, 실향민의 아픔 그리고 동해 바다와 어촌 사람들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과 묘사는 탁월한 것이었다. 더하여 기독교 예배극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그가 전한 하르트만의 예배극론과 브라우네의 종교극 이론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이 이론들을 한국에 전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한국 예배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품은 발표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 작가가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희곡 『카운터포인트』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작품은 16-17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여 21세기 현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극의 형식을 통해 연극을 통한 신과 인간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 작품은 최초의 한국 예배극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 이반은 기독교 제의극과 예배극을 써야 하는 것이 일생의 과제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스승이었던 하르트만과 브라우네의 영향<sup>4)</sup>이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한국에 돌아가서 예배극, 혹은 종교극 작품을 쓰겠다고 약속한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오던 소현세자 이야기를 극화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기독교의 소현세자 전래 기원설은 그의 출신 학교인 숭실대학에서 주장하던 기독교 전래 기원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저 역사의 기록을 극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이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사극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연만 한다면 창작되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극이지만 현실을 말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sup>5)</sup>

소현세자에게 청국은 조선에게 무기 사찰, 파병 등을 요구한다. 이것은 때마침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에 들어간 2004년의 시국과 많은 면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이반은 이때의 심정과 집필의 변을 『카운터포인트』의 작가의 의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16-7세기 조선은 일본과 명, 청나라에 둘러싸여 있었다. 일본이 먼저 쳐들어와 7년간 전쟁을 치르고 청이 두 번이나 조선으로 침공해 왔다. 청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군 3만 명을 파병하라고 요구했다.

4) 이반, 「카운터포인트」대본, 2005, 작가의 의도.

5) 이반, 퇴임 강의를 『미메스와 미토스』(서울: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008), 14.

미국은 21세기에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각국에 파병을 요구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라크에 군사를 파병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여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떠한 해답도 아무 말도 행위도 하기 힘든 상태에서 구약 성서를 펼쳐 보았다.

- 중략 -

16-7세기의 조선과 21세기의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지만 민족, 이념, 국가주의라는 이익 집단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의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사방이 벽이고 모든 문이 닫혀있다. 소현세자는 제3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평화'의 제단에 바친다. 6)

그는 기독교 예배도 신화를 음송하거나 극화하면서 현실의 상황과 미래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다. 때문에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묵시적 언어와 시적 표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카운터포인트』의 코러스를 시로 장식하고 에피소드는 산문이되 간단명료하게 처리하여 시적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순교관이었다. 그는 말한다.

“지금 세계는 도처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 인명을 해하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 한국, 북한 등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는 예배나 제의를 통해 세계와 세계인의 구원에 대하여 항상 염려해야 한다.”7)

6) 이반, “작가의 의도”, 『카운터포인트』 대본, 2005.

7) 이반, 퇴임 강의록, 『미메스와 미토스』16.

그가 평생을 두고 준비하여 온 한국적 예배극 『카운터포인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순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카운터포인트』는 작가 이반이 2004년에 집필하고 2005년 극단 ‘예맥’에 의해 공연된 작품으로 종교적 의도가 뚜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코러스를 사용한 예배극의 형태를 가지고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대인의 정신세계에서 신의 영원한 빛과 의미가 무엇이며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순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현세자의 죽음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적 순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교자(Martyr)의 어원은 ‘증언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오백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여오려 했던 소현세자의 죽음을 전쟁과 다툼 그리고 모략의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고자 하였던 증인의 순교로 그리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연극화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작가의 상상력을 제한시키기 마련이다. 이런 구속을 작가 이반은 주제에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시키고 소현세자의 죽음을 17세기 조선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토마스 엘리엇이 그랬듯이 ‘신의 의도’(the design of God)이라는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다. 극적 기법에서도 코러스의 기능을 통하여 예술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극에서의 코러스의 기능은 아이스키러스(Aeschylus) 이후 점차 쇠퇴하여 오다 엘리엇이 “대성당의 살인”에서 중심적인 역할로 회복시켰다고 한다. 작가 이반은 “카운터포인트”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코러스를 작가의 대변자로서뿐만이 아니라 극을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등장시키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대위법(對位法)이라는

뜻으로 두 개의 대위적 양식이나 주제를 결합시켜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 나 둘 이상의 독립된 성부나 선율을 결합시켜 만드는 음악을 뜻한다. 희곡 『카운터포인트』에는 인간의 역사와 평행선을 이루는 절대자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가 극 중에 사용한 코러스를 통하여 드러내어진다. 작품에 등장하는 코러스의 대사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마치 기도문과 찬양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객은 코러스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더라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하여 코러스는 관객을 향한 강한 선포(宣布)이기도 하다.

엘리엇은 “연극의 극치, 연극의 완전한 이상형은 미사의 예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는 〈대성당의 살인〉을 쓰면서 성공회 예배 속에다 토마스 베케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엘리엇을 연구했던 D. E. Jones의 주장처럼 “이런 종류의 연극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더라도 예배의 연장이거나 보충”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작가가 이반은 루터교회 신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루터교회 신자였고, 그의 스승인 하르트만은 복구 루터교회 사람이었다. 작가는 『카운터포인트』를 루터교회 예배 의식 속에 그려내고 싶었다. 그는 하르트만의 예배극 이론에 따라, 제3의 관객인 神을 의식하면서 루터교회 예배 의식에 맞추어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다.

다음의 표는 희곡 『카운터포인트』의 구조와 루터교회 예배의식의 비교를 그려 본 것이다.

〈표 1〉 희곡 〈카운터포인트〉와 “루터 교회 예배의식”<sup>8)</sup> 비교

카운터포인트	루터교회 예배 순서	비교 연구
<p>서장: 소현에게 사약을 내리는 인조, 인조를 독려하는 신하들, 세자빈의 만류, 세자의 죽음. 코러스 병자호란으로 청에 인질로 잡혀가는 세자와 세자빈. ----- 극의 도입부이자 결말을 관객에게 알려준다. 역사적 사실의 제시이자, 소현세자의 죽음을 순교로 보는 작가의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코러스</p> <p>제1장 조선에 3만 파병을 요구하는 청나라, 조선을 전란과 흉년을 핑계로 척화론을 지키려 하고, 청나라는 신무기 개발에 대한 사찰단을 보내겠다고 으박지른다. 소현은 중국 동포들과 함께 정명군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며 조선을 구하고자 애쓴다.</p> <p>제2장 코러스 폐허가 된 북경에서 소현은 아담살을 만나고, 아담살신부는 소현에게 기독교를 전한다. 코러스</p> <p>제3장-장면 1, 2, 3 토문강가에서 세자에게 인조를 퇴위시키고 소현을 왕으로 등극시킬 수 있다고 제의하는 용달아이 장군. 세자빈도 그것이 도의에는 어긋나지만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적극 제의하고 나선다. 그러나 소현은 강물에</p>	<p>입장 찬송 성호 그리기 죄의고백 사죄선언 기도송 영광송 인사 오늘의 기도 시편교독 첫 번째 성서 두 번째 성서 찬송 복음서 봉독 신앙고백 찬송 설교 봉헌 목회기도 성찬예식 기도 축도 폐회찬송</p>	<p>극의 서장은 루터교회 예배에서 입장과 성호, 죄의 고백 사죄선언, 기도송, 그리고 영광송에 해당한다. 극의 시작이며, 예배의 시작이다. 제1장은 예배의 진행인 오늘의 기도, 시편교독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해당된다. 제2장은 코러스를 앞뒤로 둔 설교, 즉 말씀 선포부분에 해당된다. 극 중에서 아담살신부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 지는 요나에 관한 말씀은 이 극에서의 선포이다. 제3장은 소현세자가 토문강가에서 용달아이로부터 왕위 제의를 받는 그리스도의 시험과 같은 장면이다. 예견했겠지만 소현세자의 청나라 볼모 생활은 그리스도의 광야생활에 해당하며 토문강가에서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3가지 유혹과 유사하다. 용달아이와 더불어 세자를 사랑하던 세자빈도 적극적으로 소현의 시험에 가담한다. 제4장은 성찬예식 전의 모든 순서에 해당된다. 돌아온 적자인 소현이 간신들과 어리석은 왕에게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받으신 것과 유사하다. 마지막 제5장은 소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며, 루터교회 예배에서 이 장면은 성찬예식에 해당된다. 무엇을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니요, 이득이 있어 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스스로</p>

8) 박성완, 『루터교 예배이해』(서울:컨콜디아사, 2000), 47~83.

<p>귀를 씻겠다며 거절한다. 김상현과 최명길을 구해 조선으로 돌아오는 소현, 조선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세자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싹트고 있다.</p> <p>제4장 두 충신들은 반기지만, 소현을 냉대하는 인조, 소현이 가지고 온 서학과 문물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크게 노하는 인조, 소현은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변론하고 인조는 왜란 때에 적기에 그려진 십자가를 가르키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학문이라 외친다. 소현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배교하라 명하고, 기독교를 전해 받은 자들을 하옥시키라 명한다. 소현은 기도한다.</p> <p>제5장-장면 1, 2, 3 인조는 간신들의 꾀임에 소현에게 사약을 내리고, 소현은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한잔, 두잔, 세잔을 마신다. 세자빈과 왕자들은 소현을 만류하고, 소현은 이 길이 만남이요 출발 그리고 시작이라 말하며 죽어간다. 코러스</p>		<p>목숨을 끊는 것도 아닌 순수한 순교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소현은 그 길을 만남의 길, 그 만남의 시작이라 믿고 담담히 걸어간다.</p>
--	--	--

작가 이반은 위의 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카운터포인트』의 기본 도형을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두고 있다. 더하여 사제와 회중 그리고 회중의 대표인 성가대가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인 “예배(Mass)”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연극이라 여겼던 엘리엇이 『대성당의 살인』을 성공회 예배를 모델로 하여 예배극으로 완성했듯이, 작가 이반은 이 작품의 진행 순서를 루터교회 예배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극이 가지는 예배극적인 요소는 이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하나의 단순한 역사

극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경건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다. 집회만 있지 예배가 존재하지 않던 한국 땅에서 토착적인 예배극을 꿈꾸어 오던 작가 이반은 오랜 예배극의 선배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작품 『카운터포인트』를 통하여 한국적 기독교 예배극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III. 토착화에 대한 고뇌와 상징으로서의 실재적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문화적 전위’(轉位)의 역사이다. 복음이 어느 문화권에 선포되든지 복음이 그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수용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복음과 문화의 만남에서 현상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과 문화의 만남으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형성되어 그 문화가 생기를 되찾고 복음도 그 문화 토양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권에서 태동했던 복음의 씨앗이 헬라 문화, 라틴 문화, 앵글로색슨 문화,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문화에서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복음전도는, 일찍이 복음을 들고 입국한 한 선교사가 “씨를 뿌리러 왔으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국선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유례없는 성장’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도 많이 있다. 교회 자체에서 자성과 참회의 소리가 드높고 외부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물량주의, 기복 신앙, 교회의 대형화, 이기적 개인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현금양태와 그 용도 문제, 신학교 난립 문제와 그에 따른 목회자의 자질 문제, 교과 분열, 교회 난립, 경직된 보수주의, 율법 및 교회 주의, 신비적 열광

주의,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이원론적 신앙생활), 세속화 등을 들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선 자리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기독교 문화가 과연 어느 정도 정착해 왔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이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의 정착 없이는 복음의 정착, 즉 한민족의 복음화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한국 문화 속에 자리 잡은 기독교의 위치를 찾아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질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도입의 연한이 다른 재래 종교와 비교해서 짧은 만큼, 어떻게 기독교가 한국 문화 주류에 자리 잡고 정착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색을 가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수용되며, 어떻게 적응하며, 어떠한 변모를 하며, 또한 서양 옷을 입고 온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한국적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2백 년 동안은 한국의 개화기로서 서구 문화와 문명을 수용하는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서구문화의 침병으로서 기독교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경시했었다. 그동안 교회에 의해 한국의 토속적 신앙이나 전통 문화는 무시되고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한국 기독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토양인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래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종교심성과 의식구조를 깊이 성찰하고 거기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이나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최소한 전통 문화의 내용은 거부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은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즉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공

유하는 문제의식, 사유 방식, 정서에 뿌리박힌 표현 등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신학을 정립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한국적 신학을 수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임스 파울러가 다섯 번째 신앙발달의 단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파울러의 신앙의 5단계는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모든 존재에 포함되어 있는 양면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변증법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획기적 성장을 하게 되는 단계<sup>9)</sup>이다. 이 단계의 신앙은 사물의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과거를 재조명해보고 깊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신앙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반성과 현재 자아의 위치를 살펴보고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만물의 관련성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인 것이다.

작가 이반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희곡을 발표해 왔다. 그의 희곡 『카운터포인트』는 작가가 한국 기독교 수용에 대한 고민과 자세에 대하여 기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시작은 소현세자에 의한 자발적인 기독교 선교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636년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청(淸)은 10만 대군을 몰아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 왕 인조(仁祖)는 임금의 일가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자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버티어 보았으나, 군사야 일만 명밖에 안 되는 열세 등으로 인해 성에서 버틴 지 45일 만인 1637년 정월에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군신관계를 맺고, 이것을 보증하는 뜻에서 왕세자인 소현세자와 왕자 봉림대군 등을 볼모로 청나라에 보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현세자는 1644년까지 심양관에서 괴롭고 쓸쓸한 귀양살이를

9)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72.

하게 되었다. 1644년 청은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어 세자 일행도 수행하여 북경에 들어가 약 70일간 머물렀다. 바로 이 사이에 소현세자는 아담 샬(J. A. Shall) 신부와 교류를 하였다.<sup>10)</sup> 아담 샬 신부는 22세에 예수회에 들어가서 수사 신부가 되었다. 1628년 예수회에서 중국에 보내는 32명 중의 한 사람으로 뽑히어 명에 들어와 서광계와 깊이 사귀고 신종 황제의 신임을 얻어 달력을 고치고 대포를 새로 만드는 일 등을 맡아 보았다. 청 황제 세조가 북경에 들어오자, 그에게도 신임을 얻어 1644년에는 흠찬감정이 되어 서양의 역법을 본떠서 대청 시헌력을 만들었다.<sup>11)</sup> 당시 소현세자는 동화문 앞에 있는 문연각에서 머물렀으며, 아담 샬 신부가 교무를 보던 곳은 선무문 내의 남당이였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 신부가 천문학과 과학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양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에 찾아갔을 것이며 신부에게 세자의 내방은 생각지 않은 영광이었을 것이다. 세자의 수행인 가운데 신부에게 천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담 샬은 열심히 가르쳤고 그에 대한 답례로 세자는 간간이 감사의 선물을 보냈다. 아담 샬 신부가 천문 서적, 과학 서적, 친구의, 그리스도 성화를 보냈으나 소현세자는 신부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화는 돌려보냈다고 한다. 신부는 세자의 편지를 서양의 문자로 번역하였다.<sup>12)</sup>

소현세자가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다음의 편지에서 잘 알 수 있다.

“벽에 걸어 놓 천주상은 보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육진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주상과 저서의 내용은 이 세상에

10)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상』(서울:카톨릭 출판사, 1992), 41.

11)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18(1968), 457.

12)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상』(서울: 카톨릭 출판사, 1992), 42.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어떻게 되어 그것들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매우 신기할 따름입니다. --- 제가 저의 왕국에 들어가는 직시로 그것을 궁중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출판하여 학자들에게 널리 알리 고저 하옵니다. 그것들은 장차 사막을 박학의 전당으로 바뀌는 은총의 보물로 찬양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서구 과학을 완전히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서적들과 성화를 저의 고국으로 간직하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저의 왕국에서 그것이 이단사교로 몰려 혹시 천주를 모독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몹시 걱정이 되어 성화를 간직하는 데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 그 성화를 당신께 돌려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감사드릴 의무로서 저의 나라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당신께 보냅니다만 그것은 당신께 배푼 은혜에 만분의 일의 보답도 되지 않을 줄 압니다.”<sup>13)</sup>

이 서한을 통하여 세자의 다정한 성품과 서구문명에 대한 놀라운 충명과 이해를 알 수 있다. 또한 천주교 신앙에 대한 관심도 드러나 있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천주교 서적 및 성화의 수락이 완곡히 거부된 아담 샬 신부는 소현세자에게 다시 교리를 알기 원하는 조선인들에게 봉사하도록 세례를 받은 선교사의 자격을 갖춘 중국인을 데리고 귀국할 것을 청하였다. 소현세자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의 동행도 같이 청하는 기대 이상의 회답을 해 왔다. 그러나 아담 샬 신부로서는 청의 천주교 정책도 정해지기 전인 이 시기에 조선에 서양인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므로 세례받은 환관과 궁녀들을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sup>14)</sup>

소현세자는 신부의 권고에 따라 황제로부터 내린 궁녀 감독관이며 신자인 이방조, 장삼외, 유중립, 곡풍등, 두문방의 다섯 사람과 여러 궁녀를

13)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458-459.

14) 김용덕, 위의 논문, 460.

데리고 1644년 11월 26일 북경을 떠나서 이듬해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명의 궁중에 큰 세력을 펴고 있던 천주교는 그대로 조선에서도 왕족들을 개종시킴으로써 조선 전체에 선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소현세자도 이 계획에 뜻을 같이하여 신앙을 가진 환관 5인과 궁녀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궁중에 살게 하고, 장차는 신부를 불러들여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돌아온 지 겨우 70일 만인 그해 4월 26일에 세자가 세상을 떠나버려 이 모든 꿈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쟁 후 8년 만에 본국에 돌아온 세자가 2-3일을 병석에서 앓다가 34세의 나이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니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세자의 죽음이 그가 청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이를 빌미로 청에서 가져온 천주교 대한 책과 물품들은 찢터미가 되고 말았다. 결국 소현세자와 같이 왔던 환관과 궁녀들도 본국으로 귀환<sup>15)</sup>하게 되었다.

이런 소현세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인조 실록에는 “세자가 동환하자 얼마 안 있어 병을 얻고 수일 사이에 서거하였다. 그런데 그 시체는 전신이 흑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칠규에서 출혈하고 있었다. 얼굴은 그 위에 덮은 현정과 구별이 안 될 정도여서 이독치사한 사람 같아 보였다”<sup>16)</sup> 라는 기록이 있다. 즉 소현세자의 죽음이 독살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세자가 병사하게 되면 담당 의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 인조는 오히려 의관을 두둔하고 입관을 서두르는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이는 인조가 소현세자를 왕위를 노리는 위협세력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sup>17)</sup>된다. 인조는 청에 볼모로 간 소현세자가 반청의 지조를 견지하며 청의 내정을 탐지하고 어떤 역경도 이

15)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상』 (서울:카톨릭 출판사, 1992), 45~47.

1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vol. 35』(서울:탐구당, 1970), 232.

17)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464~465.

겨내며 존명대의를 빛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이러한 비현실적 명분론에 대해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청의 황족들과 제장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영리를 도모하여 윤택한 재정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심양에서 실권을 갖고 국왕을 대리하여 여러 정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는 듯한 미묘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조는 청의 강요에 의해 세자에게 왕위를 내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었을 것이고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세자가 독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들이 있다.<sup>18)</sup> 결과적으로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 그 씨앗을 틔우려던 조선 천주교회의 창설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현세자의 시도를 통하여 조선에 기독교의 전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가지고 들어온 책과 물품들은 전부 소각되었고, 데리고 온 환관과 궁녀들도 본국으로 환국되었다. 세자가 조선 땅에 살아있던 짧은 기간 동안 전도되거나 세례받은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세자에 의한 공동체가 조직되었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소현세자를 통한 전래는 기독교 기원설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천주교 전래 시도였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성경 속에서 예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된 옛것과 새것의 갈등을 잘 나타낸 말씀이다. 새로운 가치와 사상의 도입이나 탄생은 늘 전통적인 것과 마찰을 빚게 마련이다. 그런 갈등은 종종 심하게는 전쟁으로도 비화된다.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 전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난과 다툼을 겪어왔다. 200여 년 전 이 땅에 파종되기 시작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파열음을 남겼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파종되었던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급속도의 성장세를 이룬 한국 기독교

18) 김용덕, 위의 논문, 466~467.

는 뼈대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장에 대한 성장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초기 선교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없이 받아들이고 전도와 성장에 눈먼 교세확장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작가 이반은 바로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자성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다.

1950년대 김은국은 <순교자>라는 작품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목사는 인식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신을 믿고 또 열심히 전도하지만 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월남을 거부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사람들을 위해 신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한다. 신목사는 신을 믿지는 못하지만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을 믿고 사는 것이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한다. 그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신이 존재하면서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인식론적으로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신의 방법인 사랑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했었다. 작가 이반은 김은국이 <순교자>에서 했던 이런 고민을 『카운터포인트』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소현은 예친왕 도르곤의 침공에 의해 폐허가 된 북경의 거리에서 독일인 신부 탕약 망(아담 샬)을 만난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전쟁에 대한 신의 책임을 묻는다.

소현    탕신부께서는 내게 중원의 천자와 기리단의 천자의 다른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기리단의 천자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역사 속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자나 아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탕약망    정복과 야욕과 약탈과 굶주림밖에 없는 이 전쟁을 향한 천자의 뜻

이 무엇인지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세자빈 기리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굶는 자들에게  
날알을 주는 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탕약망 지금으로선 그 일밖에 없습니다.<sup>19)</sup>

소현의 질문에 탕약망은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을 구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특한 소현은 탕약망과의 계속되는 대화들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전쟁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탕약망은 요나서의 예를 들면서 악인도 선인도 존재하지 않는 신의 세계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설명한다.

탕약망 요나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순간을 역사가 변하는 찰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자와 선지자들의 역사는 끝이 나고, 천자와 그의 아들 야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자빈 말씀이 혼란스럽습니다.

탕약망 니느웨의 심판과 그에 따르는 벌을 막은 것은 야소였습니다. 야소는 우리와 니느웨 도성의 죄지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소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전쟁과 같은 심판을 막았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야소가 막았습니다. 야소의 탄생으로 심판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현 기리단의 본질은 인(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탕약망 네, 세자저하. 인과 매우 가까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소가 태어나던 날,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19) 이 반, 『이반 회곡 선집』3권 (서울:연극과 인간, 2008), 21-22.

소현 평화----, 20)

김은국의 작품 순교자에서 신목사가 했던 고민을 뛰어넘어, 작가 이반은 예수 이후의 기독교에는 사랑만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외쳐지고 있는 주제이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건물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며 금발의 예수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이다. 때로 그것은 지도위에 존재하지 않는 마을처럼 우리네 사회 속에서 형체를 찾기 힘들 때도 있지만 희망이 깃뻛히고 죽음이 가로막는 그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신의 섭리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온전한 기독교의 정신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작가는 웅변한다.

과울리는 5단계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단계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한다. 이 단계의 신앙은 패배의 신성함과 철회할 수 없는 책임과 행동들의 실재를 안다고 말한다. 이 단계에서 자아와 조망은 서로 교류한다. 명백한 모순과 내포된 진리와 역설에 민감한 이 단계는 정신과 경험 사이에서 반대되는 것들과 조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자신과 다르고 위협적인 것과 가까워 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정의에 대한 책임부족, 계층, 종교적 공동체 또는 민족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바치고 또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sup>21)</sup>고 설명한다. 작가 이반이 인식하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스스로 바쳐 질 준비가 된 신앙인 것이다.

끝내 사약을 받은 소현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잔을 비운다.

20) 위의 책, 21-22.

21) J. Fowler, 앞의 책, 317.

소현 죽음,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잠기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도 있었다. (표정이 밝아지며) 그러나 지금은 만남의 순간이다. 내게는 만남밖에 없다. 만남은 출발이요, 시작이다. 만나서 시작하기 위해 이 잔은—, 22)

작가 이반은 자신의 논문 「한국기독교연극의 역사와 방향」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믿음의 내용을 한국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연극도 마찬가지로 토착적인 한국의 전통 연극 형식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했다.”<sup>23)</sup>

한국교회와 연극계가 오랫동안 시도해 온 기독교 신앙을 한국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던 노력들은 이 반의 작품 속에서 연극의 본질적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볼거리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관객과 배우가 그리고 극장이 함께 하는 장(場)으로서의 연극이다. 연기자와 관객, 관객과 관객, 나아가서 거룩한 실재로서의 신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술이 연극인 것이다. 이반은 그의 글에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말을 빌려 이 만남의 개념이야말로 기독교 연극의 본령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부버는 모든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순수한 만남이 아니고 이용관계의 만남일 수밖에 없다.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어야 하고 그때에 순수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서로가 상대에 대하여 예비하거나 계산하지 않

---

22) 이반, 앞의 책, 65.

23) 이반, 「한국 기독교 연극의 역사와 방향」,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편, 『한국 기독교와 예술』(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129.

는다는 것이다.<sup>24)</sup> 이반은 인간이 신을 만나는 그 순간이 신앙을 얻게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로 그 ‘나’와 ‘너’의 만남의 순간에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 문물의 매개체 혹은 지식층의 향유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실재자로서의 신과 인간의 만남을 이룩할 때, 진정한 토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작가 이반은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IV. 절대자와의 만남으로서의 삶과 신앙

희곡 『카운터포인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을지 모를 소현세자의 순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순교란 엄격히 말해서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둘째, 그 죽음이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찍이 오리게네스는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세주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양심의 순교라 불렀고,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애호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백색(白色)순교, 고통을 극복하고 속죄하는 행위를 녹색순교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순교는 아니다. 순교는 박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박해 없이도 가능하다. 그 예로 기독교의 정덕(貞德)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순교는 죽음에 직면하여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 하는 행위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 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순교의 목표는

24) 위의 책, 132.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 가치는 최고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일이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예언자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유대인과 초대기독교인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대 순교신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박해를 받음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다니엘서, 제2, 제4 마카비서에는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인이 당한 고난과 그들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안식일이나, 할례, 음식법 등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신정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현재의 고난은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이 고난을 통해 민족의 죄를 용서받으리라고 믿었다. 또한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도 가까우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심판 날에 의인들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 순교자들도 의인의 고난, 종말,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 하였기 때문에 순교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순교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순교의 기회를 찾았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성서를 통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가르치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심판의 주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고자 하였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자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바울을 통해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 1세기 말 경에는 로마

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기독교는 점점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로마 제국은 황제, 탁월한 법, 잘 닦여진 도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종교와 오늘날의 종교는 좀 다르다. 흔히 현대인이 생각하는 종교는 신, 구원, 내세 등에 대한 교리, 개인의 헌신과 결단, 신앙, 윤리적 실천 등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로마의 종교에는 교리, 신앙, 윤리적 실천 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의식이 중요했다. 로마인들은 신들의 평화를 위해 의식을 거행하며, 신들은 로마 세계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준다. 로마시민은 공식적 종교가 아닌 종교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로마 시민이 인정을 받지 못한 외래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제신에 대한 모독이며, 로마 시민의 위대함에 대한 무례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국이 확장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로마제국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도 함께 가져왔다. 로마에서 숭배되는 신은 점점 많아졌다. 로마시민들은 새로운 종교가 공적인 예배 의식의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나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관용하였다. 특히 유대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렸다.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에서 면제되었고, 성전세를 받을 수도 있었다. 기독교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이런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로마제국이 종교적 관용책을 펴긴 했지만, 그들은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며,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게 비취지는 종교는 박해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새로이 유행하는 미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였고, 게다가 그들이 추악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

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세 단계로 나뉜다. 약 30년에서 64년까지는 유대교에 의한 박해이다. 둘째는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이 내리기 전까지로, 대중에 의해 주도되어 각각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박해가 있었다. 데키우스 황제는 250년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을 것을 공포 하였다. 뒤를 이은 황제들도 공식 명령을 내려 박해하였다. 로마제국의 탄압은 313년에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동로마제국의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끝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초대 기독교 순교 신앙에 있지 않나 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기회를 기뻐하였다. 그들은 순교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또한 순교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고의 형태로 생각하여 찬양하였다. 그들은 미래의 지체들에게 주님을 위한 그들의 수고와 고통의 역사적 기록, 그리고 하나님의 웅대하심에 대한 고귀한 증언을 남길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자 했다. 초대 교회는 이 기록을 통해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으로 인해 절망한 자들, 환상이나 순교는 오직 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증거와 힘을 주었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이유로 갖가지 고난을 당해야 했다. 투옥되고, 욕을 먹고, 감금당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성서의 말씀과 교부들의 권고를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초대 기독교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이 예수를 본받는 최고의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기뻐하였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며, 자신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였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 그들은 기적과 환상을 체험하였다. 기적과 환상은 순교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은 순교자들 간에 평화를 가져왔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결국엔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졌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작가는 극의 마지막인 5장에서 소현세자가 3잔의 사약을 마시는 장면에서 세자의 내면에 일고 있는 갈등을 세자 가족의 음성으로 구상화시키고 있다. 세자빈은 자신을 생각해 달라며 탕제 마시기를 거부하고 배교하라고 권한다. 왕자들은 어린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 외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 죽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같은 이 소리들에 대해 소현은 담담히 대답한다.

5장 -장면 2에서

소현 나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잔은, 그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소현 죽음,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잠기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도 있었다.(표정이 밝아지며) 그러나 지금은 만남의 순간이다. 내게는 만남 밖에 없다. 만남은, 출발이요, 시작이다. 만나서 시작하기 위해 이 잔은 ---

(잔에 든 탕제를 마신다)<sup>25)</sup>

순교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의 기적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거나 인간의 의지로 행하는 의식적 행위가 아닌 것이다. 진정한 순교자란 그의 목숨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자신을 위해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순교자나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순교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자신의 의지를 상실시킨 사람이다. 그러기에 잃은 것이 아니라 오리려 찾은 것이고 출발, 시작인 것이다. 극 중에서 소현세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작가는 희곡 『카운터포인트』에서 소현세자의 죽음을 분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로 그리고 있다. 그는 능동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고민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최상의 형태로 믿어져 왔던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에서 작가 이반이 밝히고 있듯이 소현세자의 순교에만 초점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조선 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9년간 잡혀 있다 돌아오는데, 조선의 궁에서는 세자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조선의 아가멤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헬라식의 영웅이 세계와 한반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신념으로 가득 찬 12세기 잉글랜드의 켄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케트의 영웅적 순교 정신이 이 시대를 구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작가가 이 작품 『카운터포인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순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코러스를 통

해 들을 수 있다.

제2장

(수녀들)

여긴 봄의 훈풍도, 이화의 향기도 사과 꽃 내음도 없다.  
불에 탄 대궐을 식힐 샘물, 죽은 자를 덮어 줄 흙 한 줌도 그림구나.  
약탈에 처자를 앗긴 아버지의 비명과 제 몸을 잃은 사지가 거리에 널려 있구나.  
어둠 속의 사람들아.  
그대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5장

(코러스)

대기를 씻어라. 거리와 하늘을 씻어라.  
바람과 들과 산과 나무와 사람을 씻어라.

대지도 병들고 마른 들은 상처를 입고 짐승은 병 들었도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개인적인 불행도, 사사로운 손해는 건디며 인내해 왔다.  
보잘것없는 가냘픈 인생이나마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자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시작되면 밤의 공포가 몰려오고  
잠자리에 들면 한 낮의 악귀가 목을 조르는데,

모든 공포의 머리 위에서 희망을 속삭이고  
아침의 어둠 속에서 장작에 불을 지피던  
세자의 부드러운 내일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이제 세상은 더럽혀졌다.  
부정한 것은 나와 우리만이 아니다.  
이 도시와 온 세계가 다 부정하다.  
공기를 씻어라!  
하늘을 씻어라!  
바람을 씻어라! 26)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씻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신의 뜻에 따라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길버트 머레이(Murray)는 그의 논문 “Excursus on the Ritual Forms Preserved in Greek Tragedy”에서 그리스 비극의 기원을 제의적(ritual)인 것에서 찾았다.<sup>27)</sup> 디오니소스제(Dionysus)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 비극은 주인공의 죽음으로 해서 다시 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오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이고 상연되었다. 즉 이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의적 모티프가 그리스 비극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은 작가 이반의 『카운터포인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극의 주제인 순교(martyrdom)는 제의극(ritual drama)에 적합하다. 제의적 모티프가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또는 구원이라면 순교의 주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극의 진행에서 우리는 소현과 코러스 모두 점차 新生(regeneration)의 상태로 향하고 있음을 본다. 新生(regeneration)을 갖게 되고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점에서 비극적

26) 위의 책, 67~68.

27) David Ward, *T.S. Eliot: Between Two World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p.182.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적 요소-공포(fear)와 동정심(Pity), 비극적 주인공의 결함(hamartia)-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이극이 공포와 동정심이 정화됨으로써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의 비극이 아니라, 주인공 자신에 대한 승리에 관객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둔 비극 이전의 제의극적 관점을 잘 나타낸다. 카운터포인트에 나타나는 제의적 요소는 그리스의 중요제의식의 요소와 기독교 신화(christian myth)가 결합되어 이 극의 제의극(ritual drama)적 성격을 이루고 있다. 즉 소현세자의 죽음은 기독교적 신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이 세상에 구원과 부활,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앞서 순교의 주제는 죽음과 구원의 제의적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하였는데 소현세자의 죽음에 의한 순교가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살펴보자. 이 문제를 환언하면 “순교를 순교로서 성립시키는 본질은 무엇인가”<sup>28)</sup>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첫째, 순교의 본질은 순교자가 올바른 정신과 동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인간이 순교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순교에 대한 소현세자의 태도와 모든 일반인을 대표하는 코러스의 태도가 중심이 된다. 이 극은 이 두 가지 태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이 소현 자신과 코러스의 구원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 극에서 코러스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극의 제의식에 참여하게 된다.

극이 시작되면 코러스가 등장하여 관객에게 시대와 상황을 통해 극의 긴장감을 전달해 준다. 그리고 관찰자로서 소현세자의 죽음을 암시하고 자신들의 무감각 상태, 무능력을 나타낸다.

28) 한국 영어영문학회 편, 『엘리어트』(서울:민음사, 1978), 365.

서장

하늘이여 외침과 환난 중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는 하늘이여. 가을의 약탈과 겨울의 굶주림. 백성의 고통에 눈을 뜨고, 그들의 함성에 귀를 열어 열어붙은 황야에서 생명의 불을 지펴주는 하늘이여. 검고 무거운 구름이 드리운 조선을 지켜주시고, 만주 별판 언 땅에서 나라와 백성만 염려하는 소현세자와 그 일행을 살피 주옵소서.

- 중략 -

하늘이여, 구름을 걷어 버리고 빛으로 세상의 암흑을 몰아내는 하늘이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령을 쫓아 주시옵고, 밝고 넓은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sup>29)</sup>

관객들은 이러한 코러스의 말로부터 코러스가 겨울의 황량함 속에 안주하려 하면서 다시 파괴적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코러스의 의식은 소현세자의 죽음-신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무감각과 황량함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코러스를 통해 누군가의 action에 의해 자신들의 정신적, 육신적 황량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심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작가 이반은 극을 진행해 가면서 차츰차츰 코러스와 관객으로 하여금 단지 방관자로 남아 있게 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극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즉 점차 극은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의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코러스는 관객과 함께 소현세자의 정신적 갈등, 고뇌를 같이 느끼고 그의 죽음을 통한 승리와 구원을 기념 하는 공동체의 장(場)이 될 수 있게 만든다. 극 중에서 작가는 소현세자의 고통을 네 번의 유혹 장면으

29) 이 반, “한국 기독교 연극의 역사와 방향”, 12.

로 보여준다. 첫 번째는 조선으로 환국하는 소현을 배웅 나온 청의 장군 ‘용달아이’의 유혹이다. 그는 소현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 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조선과 청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소현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이후 세자가 받게 되는 세 번의 유혹은 이극의 마지막인 5장의 장면 2에서 소현이 죽음의 탕약을 마시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장면 2

소현 탕약을 마시는 마음을 한다. 약을 마신 다음 조금 비틀거린다. 행동이 느리다. 무대 왼편과 오른 편에 세자빈 강씨와 장남 석철과 차남 석린이가 있다. 그들을 대사를 할 때만 조명을 받는다.

세자빈 탕약을 드신 후 옥체가 더욱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옥침이 땀으로 젖은 것으로 보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탕약은 의금부에서 보낸 사약이 아닙니다. 내의원의 탕제입니다. 세자 저하는 이 탕제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자 저하, 탕제를 거두시고 배교하십시오. 어서 배교하십시오. 소첩은 저하의 뒤를 따르면 그뿐.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하 없는 세상은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현 두 번째 잔을 든다.

석철 아바마마, 우리 세 형제를 생각해주세요. 우리는 철이 들기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아바마마의 무릎에서 놀아 본 기억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본 적도 없습니다. 설한풍이 몰아치는 심양을 향해 앉아 눈물을 썩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석린 우리 세 형제는 남다른 우의를 다지며 커왔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우는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기력이 약해 여기에 오지도 못했습

니다. 아바마마. 궁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삼형제의 소원은 두 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가의 아이들처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세자빈 저 소리, 백성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세요. 세자 저하는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석철 잔을 거두시고, 어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 주세요.

석린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소현 나는 오래 전부터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잔은 그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세자빈 세자 저하, 잔을 거두시고 배교하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야소도 저하의 배교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분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그의 날을 앞당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고통과 인내에 익숙한 백성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소의 아버지 천자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전부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sup>30)</sup>

소현세자와 유혹자들 혹은 유혹과의 대면 장면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에게 소현세자와 그 자신의 의지와 의 투쟁을 객관화시켜 보여줌으로서 극적 갈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세 번째 유혹까지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쾌락과 권력을 통해 소현세자를 부추기지만 마지막 유혹에 대해서는 세자빈의 대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소현세자가 죽음 후의 영광과 위선적 순교에 매혹되었음을 시사한다.

(소현, 두 번째 탕제를 마신다. 매우 비틀거린다)

아니됩니다. 그 잔 속에는 저하의 몸을 녹이는 독약이 들어 있는게 분명함

30) 이반, 앞의 책, 63.

니다. 저하가 이 궁궐 속의 암투에서 벗어나 영원히 쉬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천자의 품에 안겨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떨쳐 버리고 잔을 던져 버리고 배교하십시오. 그 길만이 소첩과 아이들과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배교하십시오.

(소현, 세 번째 잔을 든다. 몸이 많이 떨린다)<sup>31)</sup>

소현세자의 죽음 직전에 등장하는 대사들을 통하여 소현에게 시도된 악마의 마지막 유혹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사탄처럼 기적에 대한 영광을 갖도록 소현세자를 유혹한다. 다시 말해, 악마는 소현의 심리 속에서 신의 뜻에 의한 도구로써 불가피한 순교를 행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자만심에 기반을 둔 의도적 순교를 행하도록 유혹한다. 더 나아가서 힘겨운 삶에 대한 도피로써의 죽음을 선택하게 하려 한다. 작가는 소현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대사를 통해 소현세자가 그때까지 자신 속에 자리 잡았던 개인적 의지와 자만심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 낸 모습을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 준다

소현 죽음,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잠기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도 있었다. (표정이 밝아지며) 그러나 지금은 만남의 순간이다. 내게는 만남밖에 없다. 만남은, 출발이요. 시작이다. 만나서 시작하기 위해 이 잔은...<sup>32)</sup>

극의 마지막에서 이 급박한 장면을 통하여 코러스와 관객은 구원을 체감하게 된다. 우리는 소현세자가 세상의 악을 정화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제의적 희생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31) 위의 책, 64.

32) 위의 책.

소현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을 당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극의 끝 무렵, 등장하는 소현세자의 죽음의 장면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소현세자의 죽음의 의미에 집중하게 한다. 대사를 할 때에만 비추어지는 세자빈과 두 아들은 유혹자가 되기도 하고, 관객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 무대의 중심에서 조명을 받으며, 잔을 드는 세자의 모습은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예배 속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작가의 이러한 극적 기법은 먼저 관객과 무대 사이의 간격을 깨뜨림으로써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와 더불어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소현세자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유혹을 관객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객들의 총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을 통한 유혹의 전달은 소현세자의 순교를 관객들에게 더욱 진지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극이 마칠 무렵, 코러스는 소현세자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체험하고 노래한다. 이때, 관객은 코러스를 통해, 지금까지 관객들이 코러스와 함께 소현세자의 죽음을 기리고 순교를 찬양하는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코러스: 대기를 씻어라

바람과 돌과 산과 나무와 사람을 씻어라.

대지도 병들고 마른 들은 상처를 입고 짐승은 병들었도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개인적인 불행도, 사사로운 손해는 건디며 인내해 왔다.

보잘것 없는 가냘픈 인생이나마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자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시작되면 밤의 공포가 몰려오고

잠자리에 들면 한 낮의 악귀가 목을 조르는데,

모든 공포의 머리 위에서 희망을 속삭이고

아침의 어둠 속에서 장작에 불을 지피던

세자의 부드러운 내일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이제 세상은 더럽혀졌다.

부정한 것은 나와 우리 만이 아니다.

이 도시와 온 세계가 다 부정하다.

공기를 씻어라!

하늘을 씻어라!

바람을 씻어라!<sup>33)</sup>

연극은 교회의 예배 의식에 그 발생 기원을 두며 희랍비극 역시 원시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연극과 종교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작가 이반의 『카운터포인트』는 이러한 연극의 모체에 근거하였으며 그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현대인의 혼돈된 실체의 상황과 어두운 절망의 세계, 정신적인 불모성을 극복하는 데 신의 질서를 재현시킴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구원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원죄를 인간의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수용하면서,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33) 위의 책, 67~68.

제임스 파올러는 다섯 번째 단계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단계가 인정과 포용의 시기라고 한다. 분명한 스스로의 신앙 인식을 가지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며 다른 입장과 대화하려 노력하려 애쓰는 단계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사회적인 무의식의 테두리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삶의 좌절과 부정적 현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34)</sup> 공고하게 확립된 신앙은 자신과 주변 세계를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제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신앙의 삶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왜곡되지 않은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작가 이반은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공연 팜플렛에 소개된 ‘작가의 의도’에서 작가 이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에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각국에 파병을 요구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라크에 군사를 파병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여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떠한 해답도 아무 말도 행동도 하기 힘든 상태에서 구약성서를 펼쳐 보았다. 요나서가 앞으로 다가왔다. 요나는 이라크에 가서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 니느웨의 심판을 막은 자는 누구일까?

소현세자는 폐허가 된 북경에서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을 만난다. 세자빈 강씨는 아담 샬에게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질문한다. 샬아 신부는 요나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상의 평화’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때

34)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이재은 옮김, 『신앙의 단계들』(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18.

수녀로 형성된 코라스는 “ 이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 표적도 없는 나라”고 한다.

『카운터포인트』에서 작가 이반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그는 이 희곡을 통하여 대위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인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평행선을 만나게 했던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연극 속의 또 다른 목소리인 코라스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당신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작가 이반은 오랜 시간, 천만 기독교인이라 사랑하는 한국 땅에 예배극을 전하고자 힘써왔다. 물론 예배극이라는 이름으로 상연되고 있는 작품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진 드라마라고 해서 다 예배극이라 할 수는 없다. 주제만 기독교적이지 예배극의 기본조차 모르고 공연되는 많은 작품들 속에서 그의 작품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한국 땅에 하르트만의 예배극 이론을 소개하면서, 긴 시간 동안 예배극의 토착화를 꿈꾸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카운터포인트』는 그가 사표로 삼았던 하르트만과 엘리엇에 대한 오마주(hommage)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인 『카운터포인트』는 하르트만의 67년 작품명이다. 작품 가운데 등장하는 코라스의 몇 부분은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에 등장하는 코라스와 닮아있다. 평생을 경주하여 온 한국적 예배극으로 완성된 『카운터포인트』 안에 그는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 V. 나가며

작가 이반의 『카운터포인트』는 2005년 극단 예맥에 의해 한국 기독교 120주년 기념작으로 공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희곡 『카운터포인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을지 모를 소현세자의 순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치는 한국적 예배극 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이반은 오랜 시간, 천만 기독교인이라 사랑하는 한국 땅에 예배극을 전하고자 힘써왔다. 『카운터포인트』는 기독교 연극의 모체에 근거하였으며 서구에서 시작된 예배극을 우리 역사 속의 사건 위에 풀어내는 극작술을 통하여 예배극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현대인의 혼돈된 실체의 상황과 어두운 절망의 세계, 정신적인 불모성을 극복하는데 신의 질서를 재현시킴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구원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판단되었다. 그가 『카운터포인트』를 쓸 당시, 세계는 새로운 혼란 속에 있었다. 도처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가 탄생한 지 2천 년이 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창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재해석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파울러의 이론에 따르면 이반의 작품은 신앙발달의 5단계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정의의 요구와 그 요구의 확대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의를 아주 예리하게 볼 수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진리에 대한 비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분적 진리의 한계를 바르게 인식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상징들, 신화들, 의식들을 새로운 깊이에서 음미하고 소중히 여길 정도로 상징이 나타내는 실재의 의미를 깊게 이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가족의 분열과 분리를 생생한 아픔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반은 작품 속에서 신을 만나

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한다. 전 인격을 내어놓고 아무런 계산이 없이 신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시대의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진리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는 신과 완전한 만남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을 통한 존재의 포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서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큰 오해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울러가 5단계의 위험성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역설적 이래로 인하여 자족감에 빠져 마비된 수동성 혹은 무위에도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소현의 순교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한국 기독교 회곡은 한국 근대사의 흐름과 함께 시대를 호흡하고 고민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까지의 작품들 가운데 파울러의 이론에 근거하여 신앙발달의 6단계에 도달한 회곡 작품은 없었다고 본다. 파울러가 말하는 인간의 신앙발달 제6단계는 보편적 신앙(Universalizing Faith)의 단계로서 보편화된 인식의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실현을 통하여 5단계의 역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 자아와 일차적 집단들, 그리고 관계있는 현재의 질서의 제도적인 협정들로부터 받는 위협에 개의치 않고 5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한 절대적 사랑과 정의의 명령에 따는 행동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자아는 초월적인 실현을 지향하여 현재의 실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찾는 일에 몰두한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문학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가 지금을 변화시키는 힘이라 할 것이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200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 회곡이 가지게 된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이반 퇴임 강의를, 「미메스와 미토스」,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008.

이반, 「카운터포인트」 대본. 작가의 의도, 2005.

\_\_\_\_\_, 『이반 희곡 선집』 3권, 서울:연극과 인간, 2008,

### •국내서적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vol. 35』, 서울: 탐구당, 1996.

김영학, 『한국 희곡의 모더니즘과 비사실주의』, 서울: 연극과 인간, 2002.

김영환, 『기독교 신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3.

김우규, 『기독교와 문학』, 서울: 종로서적, 1992.

김은주, 『기독교 연극 개론』, 서울: 성공문화사, 1991.

김준성, 『한국 기독교 순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9.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소재영, 권영진, 한승욱, 조규익, 『기독교와 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유홍렬, 『한국 천주교회사 상』, 서울: 카톨릭 출판사, 1992.

이미원, 『한국 근대극 연구』, 서울: 현대미학사, 1994.

이 반, 『연극과 예배』, 서울: 연극과 인간, 2003.

임영천, 『기독교 문학의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최중수, 『기독교 고전 문학의 이해』, 서울: 현대지성사, 1997.

한국 영어영문학회 편, 『엘리어트』, 서울: 민음사, 1978.

### •번역서

Aristotle, 『詩學』,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Curt Hohorff,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승홍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Fowler, J. W. *Stages of Faith*. 이재은 옮김.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Fowler, James, 『신앙 발달의 단계』, 사미자 옮김, 서울: 한국장로회 출판사, 2002.

Gouhier H., 『연극의 본질』, 박미리 역, 서울: 집문당, 1996.

Martin, Ralph, P.,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3

Moreti, Franco,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1.

• 외국서적

Ward, David, *T.S. Eliot: Between Two Worlds*, Rutledge and Kegan Paul, 1973.

• 논문

페레사,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 나타난 신앙과 회심의 역동적 관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2006.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6 (1968), 451-478.

이 반, 「한국 기독교 연극의 역사와 방향」, 『한국 기독교와 예술』,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

• 국 문 초 록 •

---

작가 이반이 〈혼적과 표적: 카운터포인트〉를 쓸 당시, 세계는 새로운 혼란 속에 있었다. 도처에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가 탄생한 지 2천년이 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창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재해석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작가 이반이 2004년에 집필하고 2005년 극단 ‘예맥’에 의해 공연된 작품으로 종교적 의도가 뚜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코러스를 사용한 예배극의 형태를 가지고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희곡 『카운터포인트』에서 소현세자의 죽음을 분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로 그리고 있다. 그는 능동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고민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최상의 형태로 믿어져 왔던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에서 작가 이반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그는 이 희곡을 통하여 대위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인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평행선을 만나게 했던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기독교희곡, 기독교 신앙, 토착화, 작가 이 반

---